

3. 전라남도 항목

-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 3-2 이상적인 자녀 수
-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 3-5 전자기기 사용여부 및 어려움 정도
- 3-6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2개까지 선택)
-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 3-14 야간활동 안전성
-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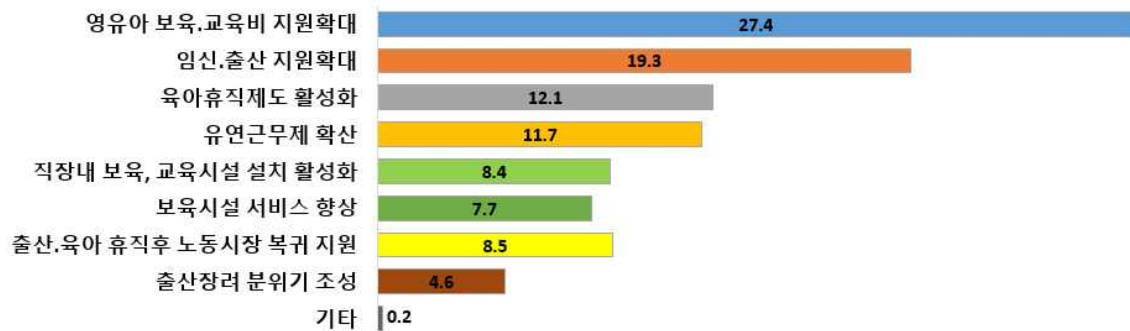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저출산 문제 해결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2025년 신안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27.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임신·출산 지원 확대」(19.3%),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12.1%)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은 2023년 27.7%에서 2025년 27.4%로 비슷한 수준임.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32.8%), 북부권(29.0%), 서남부권(21.1%)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28.0%)과 여성(26.7%) 모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음.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표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계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근무 제 확산	직장내 보육, 교육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
2017년 1순위	100.0	50.8	11.2	11.0	5.4	9.2	4.5	3.9	3.2	0.7
2019년 1순위	100.0	43.9	11.9	13.8	6.3	9.8	3.9	6.0	4.0	0.4
2021년 1순위	100.0	49.8	17.2	10.1	5.8	7.1	4.2	3.4	1.9	0.5
2021년 2순위	100.0	2.2	19.3	9.9	9.5	16.7	18.9	17.5	5.9	0.1
2023년	100.0	27.7	22.1	10.1	6.8	7.8	8.8	6.8	4.8	5.1
2025년	100.0	27.4	19.3	12.1	11.7	8.4	7.7	8.5	4.6	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9.0	20.4	17.3	10.6	4.7	5.4	10.8	1.6	0.2
북 부 권	100.0	32.8	18.2	7.4	10.6	9.4	7.9	7.8	5.8	0.1
서 남 부 권	100.0	21.1	20.8	13.2	13.0	10.3	9.2	7.0	5.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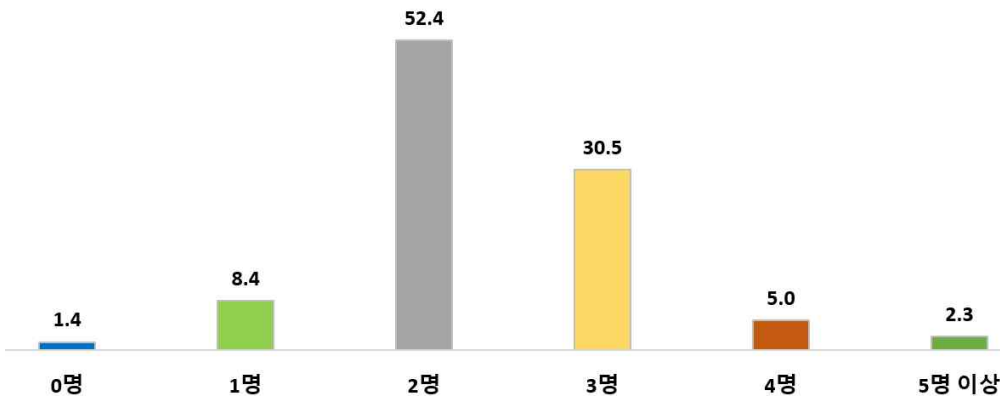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2 이상적인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 「2.4명」

- 2025년 신안군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2.4명으로 2023년(2.3명)보다 소폭 증가함.
- 지역별: 서남부권(2.6명)의 이상적 자녀 수가 가장 많고, 북부권(2.3명), 중부권(2.2명)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2.3명)보다 여성(2.4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음.
- 연령별: 70세 이상(2.6명)이 가장 많고, 15~29세(1.7명)가 가장 적음.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을 보임.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임.
- 혼인상태별: '사별/이혼'(2.6명) 집단이 가장 많았고, '미혼'(1.7명) 집단이 가장 적었음.
- 직업별: 농림어업(2.4명) 종사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가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각 2.2명)이 가장 적었음.

이상적인 자녀 수



[표 3-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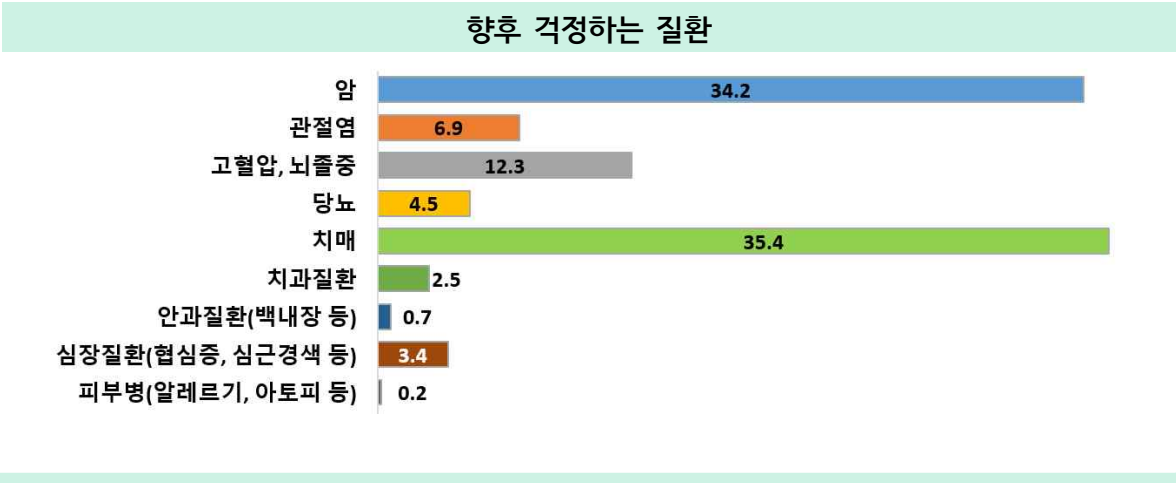
구 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2 0 1 7 년	100.0	0.9	9.2	56.2	22.5	8.5	2.7	2.4
2 0 1 9 년	100.0	1.5	17.3	55.6	17.8	7.0	0.9	2.1
2 0 2 1 년	100.0	0.8	9.4	45.6	31.2	9.1	3.9	2.5
2 0 2 3 년	100.0	1.2	13.9	48.4	27.3	5.2	3.9	2.3
2 0 2 5 년	100.0	1.4	8.4	52.4	30.5	5.0	2.3	2.4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2.6	14.1	47.0	28.7	4.6	3.0	2.3
북 부 권	100.0	2.0	9.5	60.1	23.8	2.2	2.5	2.2
서 남 부 권	100.0	0.0	3.4	48.3	38.5	8.2	1.6	2.6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향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치매」

- 2025년 신안군민이 향후 걱정하는 질환으로 「치매」(35.4%)와 「암」(34.2%)을 꼽았으며, 이 두 질환에 대한 우려가 다른 질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고혈압, 당뇨」(12.3%)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대비 「암」에 대한 우려는 42.2%에서 34.2%로 감소했으나, 「치매」에 대한 우려는 27.9%에서 35.4%로 증가하여, 가장 우려하는 질환으로 바뀜.
- 지역별: 북부권(45.1%)은 「암」을, 중부권(41.1%)과 서남부권(36.0%)은 「치매」를 가장 걱정하는 질환으로 꼽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성별: 남성(38.1%)은 「암」을 가장 우려했으나, 여성(43.7%)은 「치매」를 가장 우려함.
- 연령별: 「암」 응답은 15~29세(49.1%)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25.4%)이 가장 적음. 반대로 「치매」 응답은 70세 이상(51.2%)이 가장 많고 15~29세(13.8%)가 가장 적음.



[표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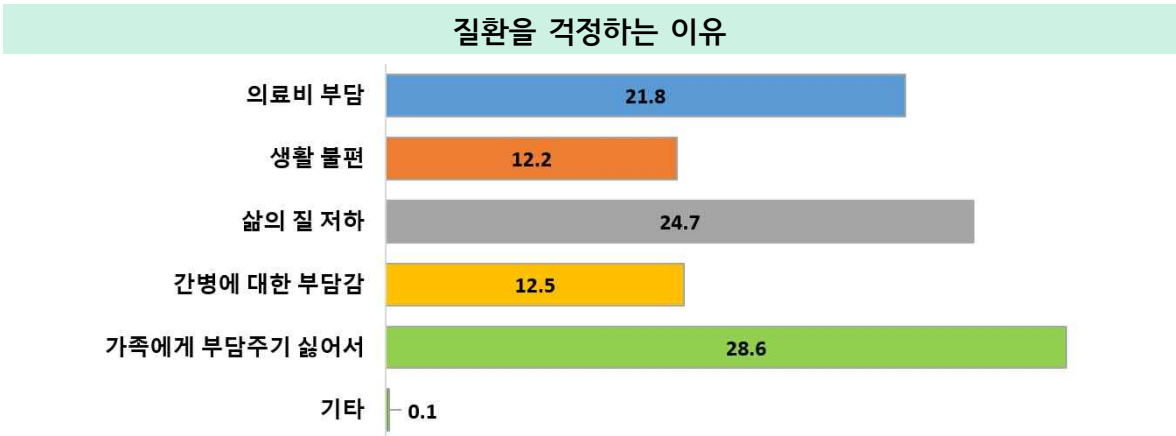
구 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 질환	안과 질환	심장 질환	피부병	기타
2021년	100.0	38.4	6.8	10.4	3.2	32.2	3.6	0.3	4.0	0.4	0.5
2023년	100.0	42.2	7.4	10.5	3.2	27.9	2.5	0.5	4.6	0.8	0.5
2025년	100.0	34.2	6.9	12.3	4.5	35.4	2.5	0.7	3.4	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5.1	6.7	9.2	4.5	25.9	2.2	0.8	5.4	0.2	
북 부 권	100.0	35.1	7.5	9.3	3.6	41.1	0.6	1.2	1.4	0.2	
서 남 부 권	100.0	26.0	6.3	17.5	5.4	36.0	4.6	0.0	4.1	0.2	
< 성 별 >											
남 자	100.0	38.1	4.8	16.6	4.8	28.4	2.9	0.6	3.7	0.0	
여 자	100.0	29.5	9.3	7.2	4.1	43.7	2.0	0.7	3.1	0.4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28.6%) 응답이 가장 많고, 「삶의 질 저하」(24.7%), 「의료비 부담」(21.8%) 순으로 나타남.
- 2023년과 2025년 모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가 1순위였으나, 그 비율은 38.9%에서 28.6%로 감소함. 반면 「삶의 질 저하」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32.3%)과 중부권(28.3%)은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서남부권(37.1%)은 「삶의 질 저하」를 가장 우려하는 이유로 꼽음.
- 성별: 남성은 「삶의 질 저하」(27.5%), 여성은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30.5%)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15~29세는 「의료비 부담」, 40대, 50대는 「삶의 질 저하」,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삶의 질 저하」를 가장 우려하여 소득별로 차이를 보임.



[표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
2021년	100.0	23.0	17.1	18.8	9.2	31.6	0.4
2023년	100.0	15.3	14.5	20.2	10.9	38.9	0.2
2025년	100.0	21.8	12.2	24.7	12.5	28.6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0.2	14.1	13.7	9.6	32.3	0.0
북 부 권	100.0	26.1	10.3	19.8	15.4	28.3	0.2
서 남 부 권	100.0	11.8	12.9	37.1	11.6	26.3	0.2
< 성 별 >							
남 자	100.0	21.6	12.6	27.5	11.3	26.9	0.1
여 자	100.0	22.1	11.8	21.5	14.0	30.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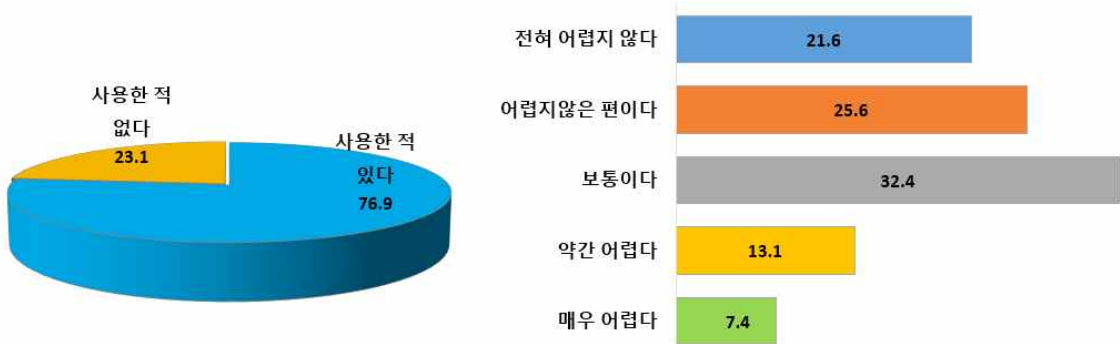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5 전자기기 사용여부 및 어려움 정도

전자기기 사용 경험 76.9%, 어려움 20.1%

- 응답자의 76.9%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음. 사용 경험자 중 「어렵지 않다(전혀+별로)」는 응답은 47.2%였으나, 「어렵다(약간+매우)」는 응답도 20.5%로 나타남.
- 지역별: 전자기기 사용 경험률은 중부권(82.9%), 서남부권(74.0%), 북부권(72.2%) 순이며, 사용 시 「어렵다」는 응답은 중부권(23.9%), 서남부권(19.8%), 북부권(15.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82.7%)의 사용 경험률이 여성(70.1%)보다 높았으나, 사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여성(26.1%)이 남성(16.3%)보다 높음.
- 연령별: 사용 경험률은 40대(94.7%)가 가장 높고, 70세 이상(48.8%)에서 가장 낮음. 사용 시 어려움은 70세 이상(55.2%)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함.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사용 경험률(대졸이상 95.3%)이 높고,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중졸이하 41.6%)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 직업별: 전문/관리직(97.5%)의 사용 경험률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78.0%) 종사자가 가장 낮았으며, 「어렵다」는 응답은 농림어업(26.1%) 종사자가 가장 많았음.

전자기기 사용여부 및 어려움 정도



[표 3-5] 전자기기 사용여부 및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계	사용한 적 있다	소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사용한 적 없다
2025년	100.0	76.9	100.0	21.6	25.6	32.4	13.1	7.4	23.1
<지역별>									
중부권	100.0	72.2	100.0	27.8	26.9	30.0	7.9	7.3	27.8
북부권	100.0	82.9	100.0	20.1	26.0	30.0	15.7	8.2	17.1
서남부권	100.0	74.0	100.0	19.2	24.3	36.7	13.4	6.4	26.0
<성별>									
남자	100.0	82.7	100.0	22.7	29.1	31.9	12.4	3.9	17.3
여자	100.0	70.1	100.0	20.0	20.7	33.1	13.9	12.2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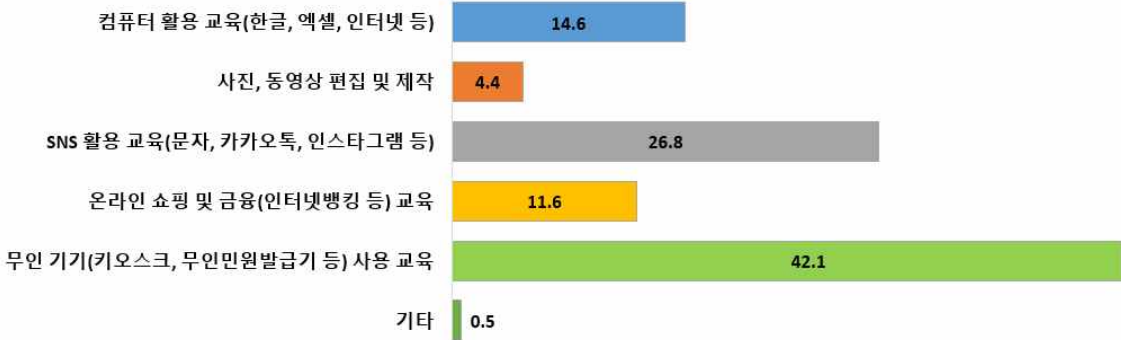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6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2개까지 선택)

「무인기기 사용 교육」 필요

- 2025년 신안군민은 전자기기 사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인 기기(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사용 교육」(42.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SNS 활용 교육」(26.8%), 「컴퓨터 활용 교육」(14.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북부권(39.9%)과 중부권(55.7%)은 「무인 기기(키오스크) 교육」을, 서남부권(32.6%)은 「SNS 활용 교육」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응답함.
- 성별: 남성(44.9%)과 여성(39.8%) 모두 「무인기기(키오스크) 교육」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연령별: 40대는 「컴퓨터 활용 교육」(38.2%), 50대 이상은 「무인기기(키오스크) 교육」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2개까지 선택)



[표 3-6]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2개까지 선택) (단위: %)

구 분	계	컴퓨터 활용 교육	사진, 동영상 편집 및 제작	SNS 활용 교육	온라인 쇼핑 및 금융 교육	무인 기기 사용 교육	기타
2 0 2 5 년	100.0	14.6	4.4	26.8	11.6	42.1	0.5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13.9	1.2	23.8	21.3	39.9	0.0
북 부 권	100.0	9.5	3.8	23.9	6.0	55.7	1.2
서 남 부 권	100.0	21.9	7.4	32.6	12.8	25.3	0.0
< 성 별 >							
남 자	100.0	11.1	4.5	26.1	12.9	44.9	0.6
여 자	100.0	17.5	4.4	27.4	10.5	39.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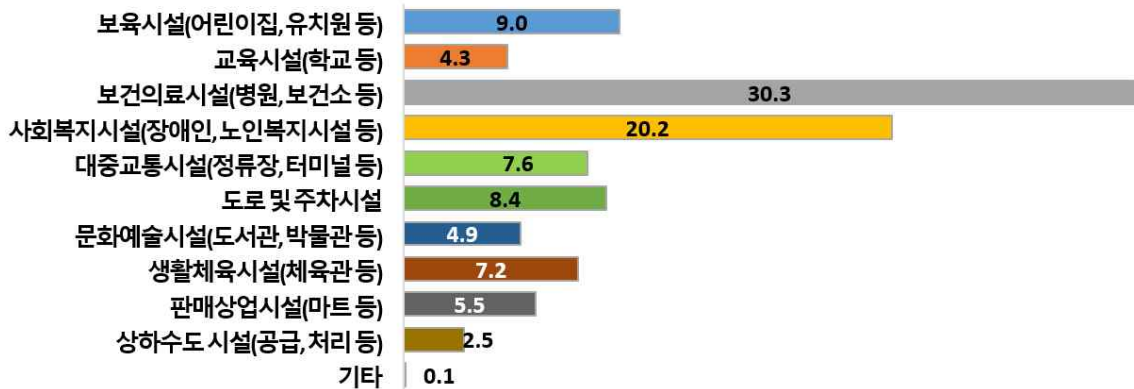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필요한 편의시설 「보건의료시설」

- 2025년 신안군민은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30.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20.2%), 「보육시설」(9.0%)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시설」 응답은 2023년 27.7%에서 2025년 30.3%로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은 「사회복지시설」(27.8%)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32.0%)과 서남부권(35.4%)은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29.6%)과 여성(31.2%) 모두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사무직은 「문화예술시설」을, 그 외 모든 직업군에서는 「보건의료시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특히 농림어업(33.3%) 종사자의 응답이 가장 많음.
- 가구소득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고, '100만원 미만'(37.8%)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표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계	보육 시설	교육 시설	보건 의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대중 교통 시설	도로 및 주차 시설	문화 예술 시설	생활 체육 시설	판매 상업 시설	상하수도 시설	기타
2021년 1위	100.0	10.7	9.9	38.3	15.2	5.4	6.6	8.1	3.3	1.4	1.1	
2021년 2위	100.0	1.5	4.0	8.5	24.6	6.6	17.0	9.8	14.4	11.6	2.1	
2023년	100.0	8.8	5.1	27.7	21.3	7.7	7.9	5.3	5.5	7.3	3.4	0.1
2025년	100.0	9.0	4.3	30.3	20.2	7.6	8.4	4.9	7.2	5.5	2.5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8.8	8.2	20.8	27.8	3.9	8.5	6.4	10.0	5.5	0.0	0.2
북 부 권	100.0	12.3	3.7	32.0	13.5	15.5	6.9	4.1	5.1	5.7	1.3	0.0
서 남 부 권	100.0	5.7	2.3	35.4	21.6	2.5	9.9	4.6	7.5	5.1	5.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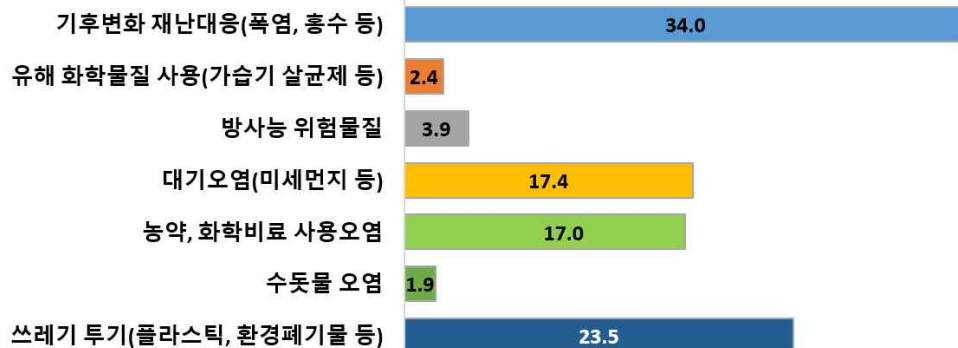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8 우선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 「기후변화 재난 대응」

-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 재난대응(폭염, 홍수)」 응답이 34.0%로 가장 많고, 「쓰레기 투기(플라스틱, 환경폐기물 등)」 23.5%,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17.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가장 응답이 많았던 「방사능 물질위험」은 34.7%에서 3.9%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은 28.5%에서 34.0%로 증가하여 2025년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북부권(29.2%)과 중부권(43.6%)은 「기후변화 재난대응」을, 서남부권은 「쓰레기 문제」(32.6%)를 최우선으로 꼽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성별: 남성(37.3%)과 여성(30.0%) 모두 「기후변화」를 가장 우려하는 환경문제로 응답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표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단위: %)

구 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유해 화학 물질 사용	방사능 위험물질	대기오염	농약, 화학비료 사용 오염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	기타
2019년	100.0	15.1	8.1	10.7	42.7	2.8	3.6	17.0	0.1
2021년	100.0	25.4	4.8	5.1	15.5	15.0	2.1	32.1	
2023년	100.0	28.5	5.8	34.7	5.4	14.0	2.8	8.7	
2025년	100.0	34.0	2.4	3.9	17.4	17.0	1.9	23.5	
< 지역별 >									
중 부 권	100.0	29.2	3.4	9.5	18.1	20.5	0.0	19.2	
북 부 권	100.0	43.6	3.4	3.6	14.0	16.2	1.8	17.4	
서 남 부 권	100.0	27.3	0.6	0.3	20.4	15.3	3.3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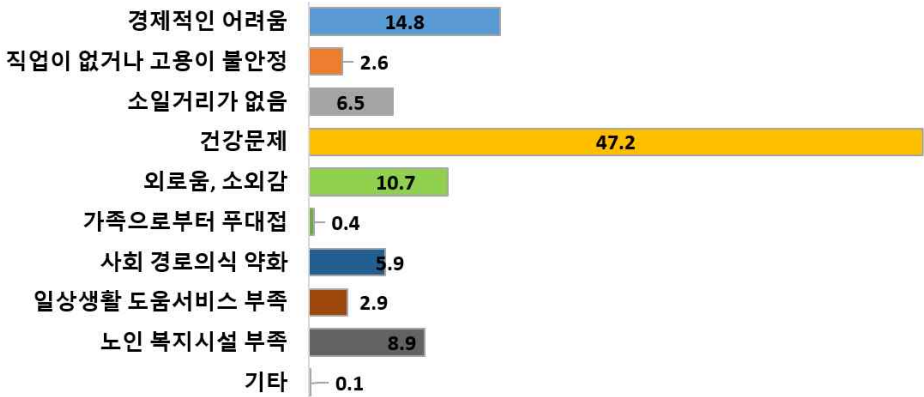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건강문제」

-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47.2%)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14.8%), 「외로움, 소외감」(10.7%) 순으로 나타남.
- 「건강문제」 응답은 2023년 48.3%에서 2025년 47.2%로 소폭 감소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건강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서남부권(48.8%), 북부권(47.4%), 중부권(45.7%)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46.2%)과 여성(48.2%) 모두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 '미혼'은 「외로움, 소외감」(43.3%)을, '배우자 있음'과 '사별/이혼'은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 경제활동별: 취업자(47.0%)와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46.6%) 모두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고, 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임.
- 가구소득별: 모든 소득 구간에서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음.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표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2017년 1순위	100.0	34.3	4.5	10.2	36.1	7.5		2.6	1.8	3.1	
2019년 1순위	100.0	47.4	4.1	14.4	23.0	5.8	0.3	1.9	0.5	2.7	
2021년 1순위	100.0	28.7	1.5	8.3	49.6	5.4	0.5	1.7	1.6	2.2	0.5
2021년 2순위	100.0	5.6	1.3	3.9	35.4	23.8	0.5	8.7	9.7	11.2	
2023년	100.0	17.0	5.3	7.4	48.3	8.3	0.3	2.9	4.7	5.6	0.1
2025년	100.0	14.8	2.6	6.5	47.2	10.7	0.4	5.9	2.9	8.9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0.3	1.9	13.7	47.4	10.5	1.1	2.1	3.0	9.5	0.5
북 부 권	100.0	19.5	2.9	4.0	45.7	7.6	0.4	9.9	2.3	7.7	0.0
서 남 부 권	100.0	12.5	2.7	4.2	48.8	14.3	0.0	3.9	3.7	9.8	0.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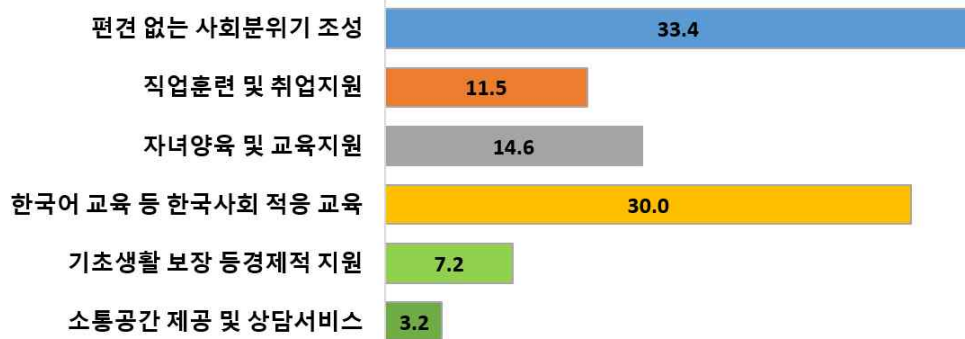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33.4%) 응답이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30.0%), 「자녀양육 및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14.6%) 순으로 나타남.

-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은 2023년 36.3%에서 2025년 33.4%로 감소함.
- 지역별: 중부권(42.5%)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0.3%)과 서남부권(39.9%)은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34.0%)과 여성(32.7%) 모두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40대는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표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단위: %)

구 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기초생활 보장 등 경제적 지원	소통 공간 제공 및 상담서비스	기타
2017년	100.0	50.2	13.5	8.0	24.5	3.7	-	0.1
2019년	100.0	40.1	15.4	12.1	20.5	7.0	4.9	
2021년	100.0	35.3	10.0	17.6	19.1	10.3	7.8	
2023년	100.0	36.3	8.5	17.2	22.9	7.7	7.4	
2025년	100.0	33.4	11.5	14.6	30.0	7.2	3.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3.8	9.3	26.9	30.3	5.7	4.0	
북 부 권	100.0	42.5	14.1	12.3	20.1	8.1	2.9	
서 남 부 권	100.0	30.5	10.4	8.7	39.9	7.4	3.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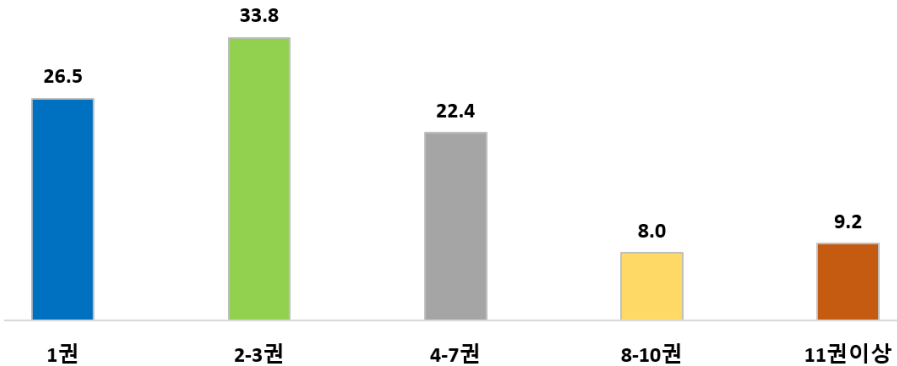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독서율 54.1%, 연평균 5.3권

- 2025년 신안군민의 독서율(지난 1년간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은 54.1%이며, 독서 경험자의 연평균 독서량은 5.3권임.

- 독서율은 2023년 48.0%에서 2025년 54.1%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독서량은 2023년 5.2권에서 2025년 5.3권으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독서율은 서남부권(60.7%), 북부권(50.7%), 중부권(49.9%) 순이며, 연평균 독서량은 북부권(8.8권), 서남부권(4.7권), 중부권(3.6권)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독서율은 남성(60.4%)이 여성(46.7%)보다 높고, 독서량도 남성(5.4권)이 여성(5.1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30대(80.2%) 독서율이 가장 높고, 연평균 독서량은 40대(6.2권)가 가장 많음.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율과 독서량 모두 뚜렷하게 증가함.
- 직업별: 전문/관리직의 독서율(92.2%)과 독서량(11.7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독서량



[표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단위: %)

구 분	계	읽음								안읽음
			소계	1권	2-3권	4-7권	8-10권	11권이상	연평균 독서관수	
2 0 1 7 년	100.0	62.3	100.0	17.5	17.5	15.1	3.5	14.7	8.01	37.7
2 0 1 9 년	100.0	60.7	100.0	18.2	40.3	21.9	12.0	7.5	5.68	39.3
2 0 2 1 년	100.0	41.8	100.0	23.4	40.5	22.9	5.8	7.8	4.4	58.2
2 0 2 3 년	100.0	48.0	100.0	17.9	34.5	27.1	13.3	7.2	5.2	52.0
2 0 2 5 년	100.0	54.1	100.0	26.5	33.8	22.4	8.0	9.2	5.3	45.9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50.7	100.0	13.5	23.6	26.8	13.1	23.0	8.8	49.3
북 부 권	100.0	49.9	100.0	32.3	40.9	19.8	4.4	2.6	3.6	50.1
서 남 부 권	100.0	60.7	100.0	29.0	33.7	22.2	8.2	6.9	4.7	39.3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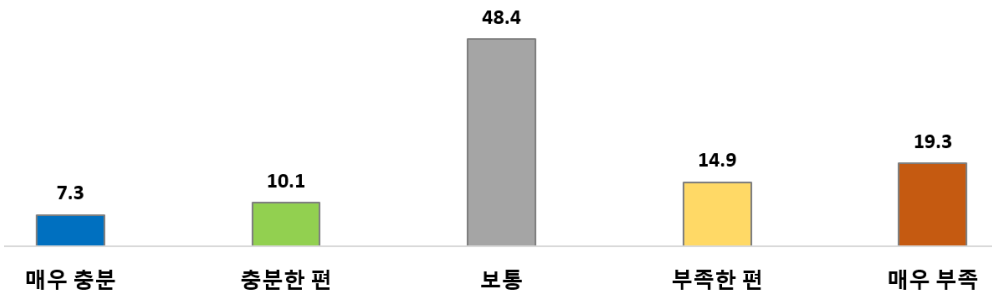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자신의 독서량 「보통」

- 2025년 신안군민이 자신의 독서량에 대하여 「보통」(48.4%)이라고 느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34.2%), 「충분하다」(충분+매우 충분)(17.4%) 순으로 나타남.

-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3년 55.7%에서 2025년 34.2%로 크게 감소함.
- 지역별: 북부권(50.7%)은 「부족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51.4%)과 서남부권(52.5%)은 「보통」이 가장 주된 응답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51.1%)과 여성(52.5%) 모두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15~29세는 「부족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표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충분하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
2017년	100.0	7.2	2.6	4.6	26.0	66.8	30.8	36.0
2019년	100.0	9.3	3.6	5.7	29.5	61.2	25.7	35.5
2021년	100.0	7.5	1.5	6.0	35.8	56.7	28.5	28.2
2023년	100.0	9.7	2.3	7.5	34.6	55.6	23.2	32.5
2025년	100.0	17.4	7.3	10.1	48.4	34.2	14.9	19.3
< 지역별 >								
중 부 권	100.0	11.7	0.9	10.7	37.7	50.7	16.5	34.2
북 부 권	100.0	23.7	15.7	8.0	51.4	24.9	15.6	9.3
서 남 부 권	100.0	14.9	3.1	11.8	52.5	32.6	13.2	19.5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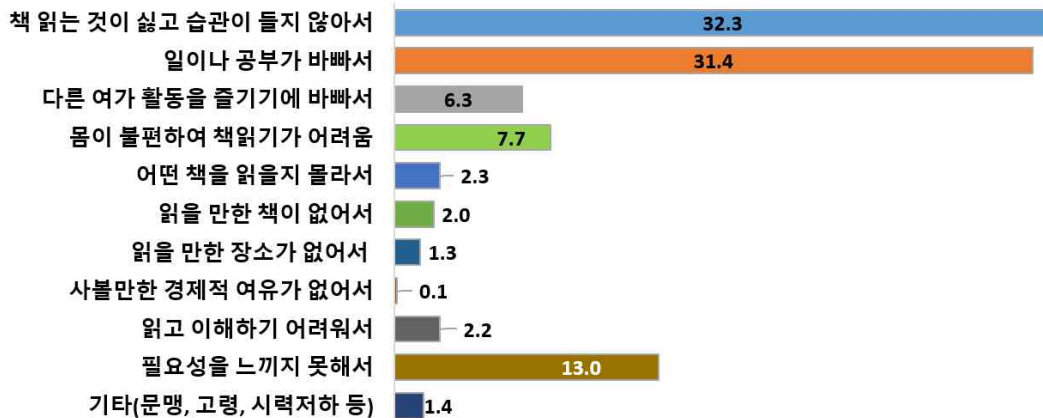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32.3%)를 꼽았으며,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1.4%),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0%)가 그 뒤를 이었음.

-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은 2023년 40.0%에서 2025년 32.3%로 감소함.
- 지역별: 중부권(30.6%)은 「책 읽는 것이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4.6%)과 서남부권(36.6%)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32.6%) 응답이 가장 많고, 여성은 「책 읽는 것이 싫어서」(33.3%)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15~29세와 30대, 60대는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책 읽는 것이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표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 분	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움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책을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책을 사볼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육아, 문맹 등)
2017년	100.0	33.1	31.8	8.3	7.9	2.6	1.2	1.1	1.9	1.4	10.0	0.6
2019년	100.0	34.4	28.4	8.8	6.2	2.5	1.2	0.6	1.7	2.7	12.9	0.6
2021년	100.0	34.8	30.2	6.4	6.3	1.9	1.7	0.9	0.7	3.9	12.6	0.6
2023년	100.0	40.0	20.8	3.1	8.5	1.6	0.9	0.1	0.1	2.5	20.7	1.7
2025년	100.0	32.3	31.4	6.3	7.7	2.3	2.0	1.3	0.1	2.2	13.0	1.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3.1	34.6	6.7	8.2	2.7	0.3	0.0	0.0	2.4	9.7	2.3
북 부 권	100.0	30.6	20.3	5.2	8.9	2.9	3.4	2.1	0.5	1.6	23.3	1.2
서 남 부 권	100.0	32.9	36.6	6.7	6.3	1.4	2.4	1.8	0.0	2.5	8.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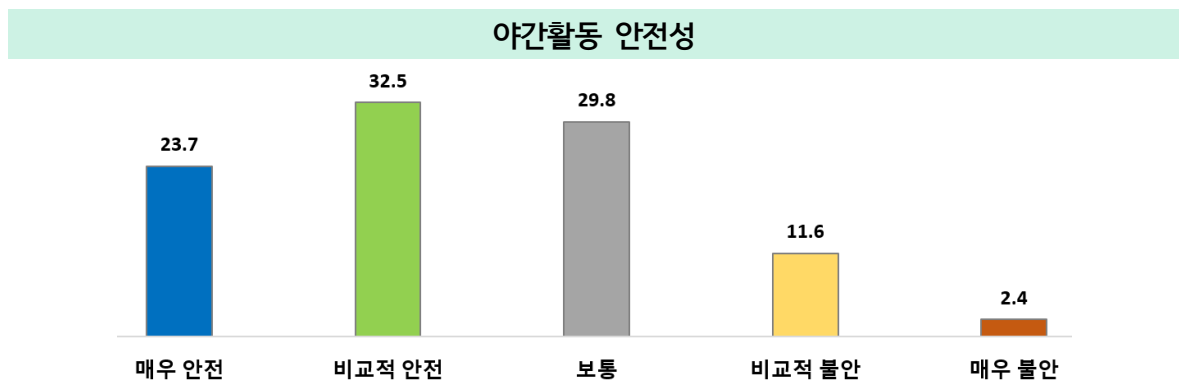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14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활동 및 보행 「안전하다」

-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매우+비교적 안전) 응답이 56.2%로 가장 많고, 「보통」(29.8%), 「불안하다」(매우+비교적 불안)(14.0%)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는 응답은 2023년 40.5%에서 2025년 56.2%로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안전하다」가 주된 응답이며, 북부권(68.8%), 중부권(57.8%), 서남부권(46.1%)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58.1%)과 여성(53.9%) 모두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안전하다」 응답은 60대(61.3%)가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15~29세(25.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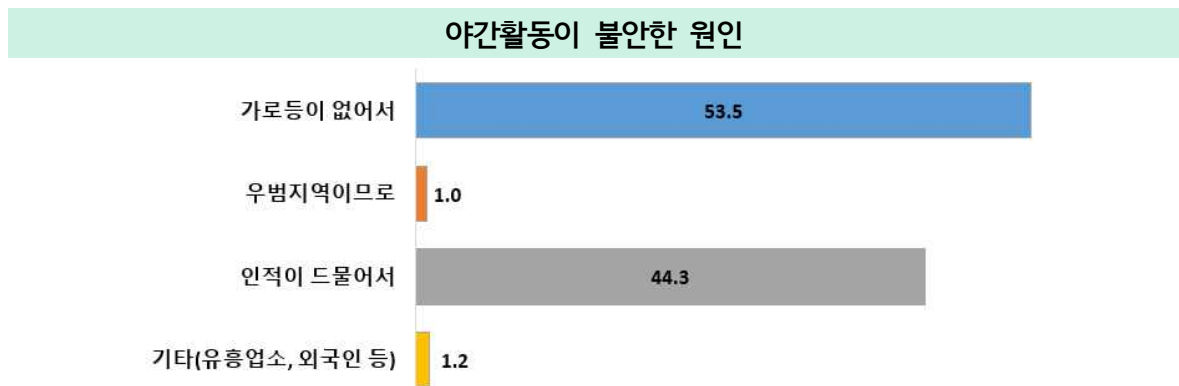
구 분	계	안전하다			보통	불안하다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7년	100.0	35.8	6.3	29.5	48.9	15.3	12.8	2.5
2019년	100.0	44.7	7.3	37.4	42.1	13.1	11.4	1.8
2021년	100.0	43.9	8.4	35.4	46.5	9.6	8.6	1.0
2023년	100.0	40.5	4.1	36.4	47.8	11.7	8.9	2.9
2025년	100.0	56.2	23.7	32.5	29.8	14.0	11.6	2.4
< 지역별 >								
중부권	100.0	68.8	22.9	45.9	24.8	6.4	5.9	0.5
북부권	100.0	57.8	32.6	25.2	29.5	12.7	10.2	2.5
서남부권	100.0	46.1	15.1	31.0	33.5	20.4	16.8	3.6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가로등이 없어서」

- 야간 활동 및 보행이 「불안하다(비교적+매우 불안하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안한 이유는 「가로등이 없어서」(53.5%) 응답이 가장 많고, 「인적이 드물어서」(44.3%)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가장 응답이 많았던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은 51.4%에서 44.3%로 감소하였으며,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은 34.2%에서 53.5%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
- 지역별: 북부권(52.0%)은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57.4%)과 서남부권(52.3%)은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59.3%)과 여성(49.1%) 모두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15~29세와 30대, 40대는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50대 이상은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 (유흥업소, 외국인 등)
2017년	100.0	35.0	11.3	49.6	4.0
2019년	100.0	36.8	11.8	49.5	1.8
2021년	100.0	50.3	1.4	48.3	
2023년	100.0	34.2	12.7	51.4	1.8
2025년	100.0	53.5	1.0	44.3	1.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8.0	0.0	52.0	0.0
북 부 권	100.0	57.4	2.8	38.6	1.2
서 남 부 권	100.0	52.3	0.0	46.3	1.5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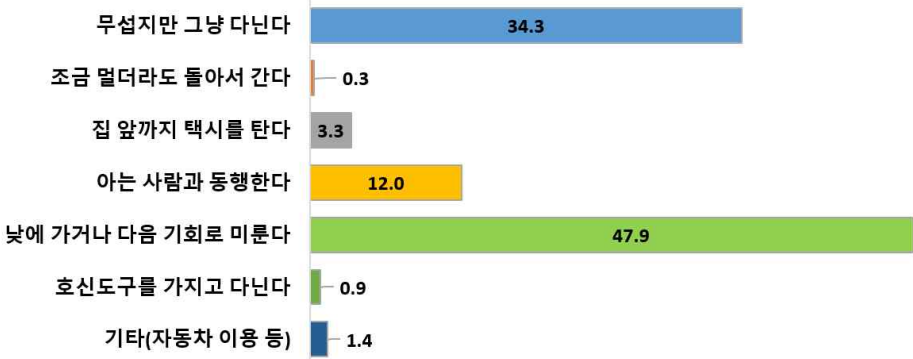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야간 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으로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47.9%) 응답이 가장 많고,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34.3%), 「집까지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12.0%) 순으로 나타남.

- 2023년과 2025년 모두 「낮에 가거나 미룬다」가 가장 주된 대처 방식이었으며, 이 응답은 43.3%에서 47.9%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 서남부권은 「낮에 가거나 미룬다」(60.3%)를 주된 대처 방식으로 선택했으나, 북부권(46.9%)과 중부권(44.3%)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이 가장 많음.
- 성별: 남성(41.2%)과 여성(53.0%) 모두 「낮에 가거나 미룬다」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40대와 50대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낮에 가거나 미룬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표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단위: %)

구 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자동차 이용 등)
2017년	100.0	41.4	9.4	14.2	9.5	25.0	0.2	0.2
2019년	100.0	49.9	8.2	10.4	7.5	21.6	1.8	0.6
2021년	100.0	41.7	3.4	4.1	6.7	40.2	0.0	3.9
2023년	100.0	36.7	0.4	1.0	16.5	43.3	2.1	
2025년	100.0	34.3	0.3	3.3	12.0	47.9	0.9	1.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6.9	0.0	3.5	15.3	34.4	0.0	0.0
북 부 권	100.0	44.3	0.0	5.3	11.1	32.9	2.5	4.0
서 남 부 권	100.0	25.3	0.6	1.9	11.9	60.3	0.0	0.0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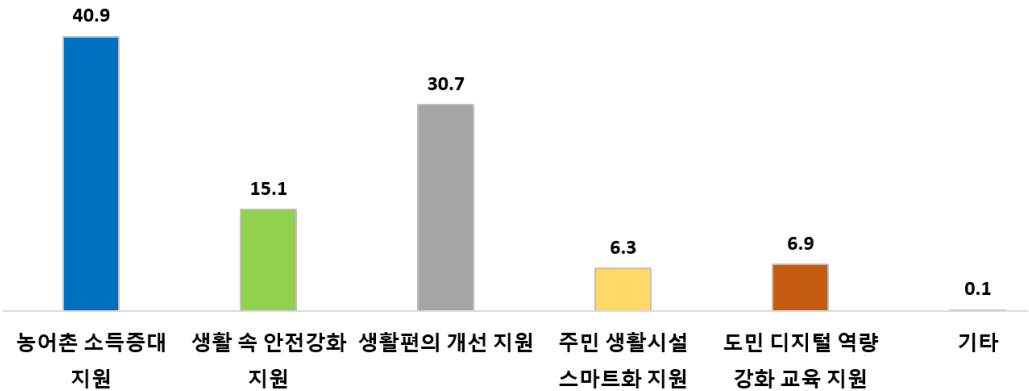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 2025년 신안군민은 디지털 기술을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자율작업 트랙터 개발, 드론활용 등)」(40.9%)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생활편의 개선 지원(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등)」(30.7%),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보행자 안심알란, IoT기반 농작물 절도 예방 등)」(15.1%) 순으로 나타남.

-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은 2023년 32.3%에서 2025년 40.9%로 증가함.
- 지역별: 북부권(42.6%)과 중부권(42.9%)은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생활편의 개선 지원」(44.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 남성(45.4%)과 여성(35.6%) 모두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15~29세와 40대는 「생활편의 개선 지원」을,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분야로 꼽아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임.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표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단위: %)

구 분	계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	생활편의 개선 지원	주민 생활시설 스마트화 지원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타
2023년	100.0	32.3	18.4	25.3	9.4	14.4	0.3
2025년	100.0	40.9	15.1	30.7	6.3	6.9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42.6	19.8	17.6	11.4	8.6	0.0
북 부 권	100.0	42.9	18.3	26.3	5.8	6.5	0.2
서 남 부 권	100.0	37.6	8.7	44.1	3.3	6.1	0.2
< 성 별 >							
남 자	100.0	45.4	11.6	29.5	6.7	6.9	0.0
여 자	100.0	35.6	19.2	32.2	5.8	6.9	0.3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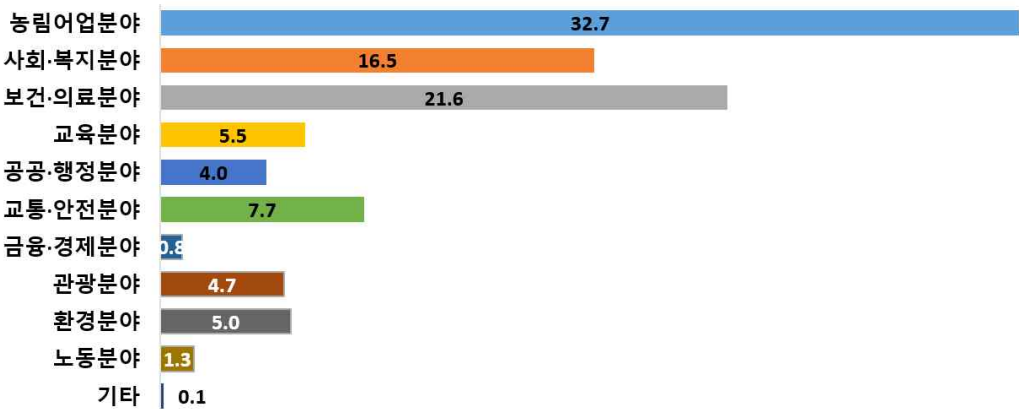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농림어업분야」

- 거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로는 「농림어업분야」(32.7%) 응답이 가장 많고, 「보건·의료분야」 21.6%, 「사회·복지 분야」 16.5% 순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분야」 응답은 2023년 25.8%에서 2025년 32.7%로 상승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농림어업분야」를 가장 우선적인 분야로 꼽았으며, 서남부권(35.1%), 중부권(32.3%), 북부권(30.2%)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36.3%)과 여성(28.4%) 모두 「농림어업분야」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어업분야」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표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계	농림 어업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보건·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공공· 행정 분야	교통· 안전 분야	금융· 경제 분야	관광 분야	환경 분야	노동 분야	기타
2023년	100.0	25.8	18.4	25.5	6.2	5.8	6.3	1.3	5.4	4.0	1.3	
2025년	100.0	32.7	16.5	21.6	5.5	4.0	7.7	0.8	4.7	5.0	1.3	0.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0.2	21.6	23.0	10.6	3.4	3.9	0.7	4.3	1.7	0.7	0.0
북 부 권	100.0	32.3	10.7	17.7	4.5	3.3	15.7	0.9	5.1	8.5	1.2	0.1
서 남 부 권	100.0	35.1	18.5	24.1	2.8	5.1	3.1	0.9	4.5	4.0	1.8	0.2
< 성 별 >												
남 자	100.0	36.3	15.6	19.1	4.6	4.6	6.8	1.0	5.4	4.9	1.6	0.1
여 자	100.0	28.4	17.6	24.5	6.6	3.4	8.8	0.7	3.8	5.0	1.0	0.1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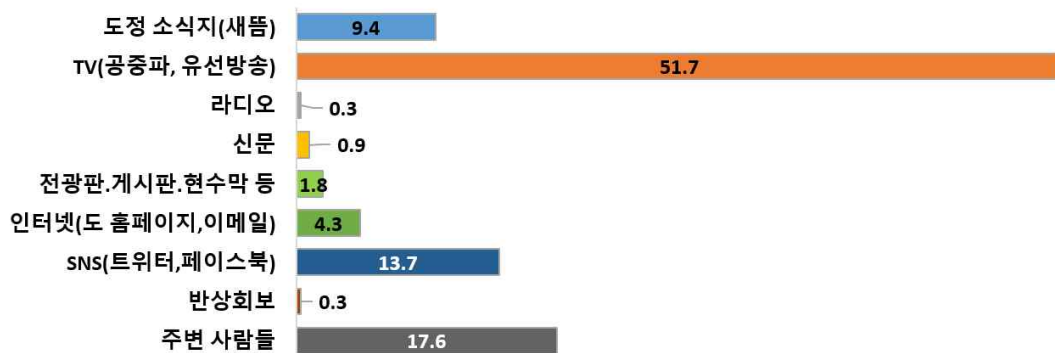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TV」를 통해 획득

- 2025년 신안군민은 전라남도 도정 정보를 주로 「TV(공중파, 유선방송)」(51.7%)를 통해 얻고 있으며, 이어서 「주변 사람들」(17.6%), 「SNS(카카오톡 등)」(13.7%) 순으로 나타남.

- 「TV」를 통하여 도정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은 2023년 40.9%에서 2025년 51.7%로 증가함.
- 지역별: 모든 지역에서 「TV」가 주된 정보 획득 매체로 나타났으며, 서남부권(64.6%), 북부권(56.6%), 중부권(35.9%)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49.1%)과 여성(54.8%) 모두 「TV」를 가장 주된 정보 획득 매체로 사용함.
- 연령별: 15~29세는 「SNS」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TV」를 주된 정보 매체로 사용하여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연령이 높을수록 「TV」, 연령이 낮을수록 「SNS」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표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단위: %)

구 분	계	도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 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 0 1 7 년	100.0	6.5	47.8	4.4	1.9	5.3	15.8	7.9	0.2	10.0	0.3
2 0 1 9 년	100.0	9.5	41.2	2.2	1.7	6.8	11.5	15.9	0.4	10.5	0.2
2 0 2 1 년	100.0	14.9	40.4	0.4	4.3	4.0	6.6	12.8	0.2	14.6	1.9
2 0 2 3 년	100.0	11.2	40.9	0.9	1.8	1.4	6.6	13.4	0.1	23.6	0.2
2 0 2 5 년	100.0	9.4	51.7	0.3	0.9	1.8	4.3	13.7	0.3	17.6	
< 지 역 별 >											
중 부 권	100.0	7.8	56.6	0.0	0.4	0.4	1.5	18.9	0.0	14.4	
북 부 권	100.0	14.4	35.9	0.5	1.1	0.9	3.6	13.5	0.8	29.4	
서 남 부 권	100.0	5.4	64.6	0.3	1.0	3.7	7.0	10.4	0.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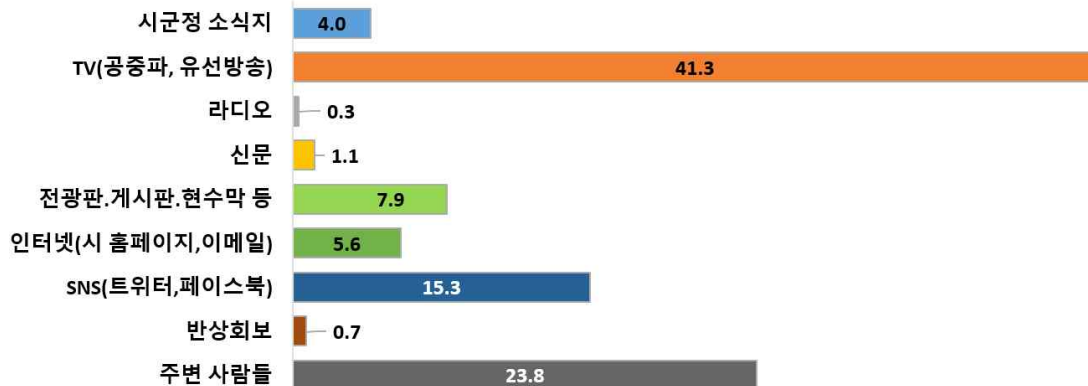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TV」를 통해 획득

- 2025년 신안군민은 군정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TV(공중파, 유선방송)」(41.3%) 응답이 가장 많고, 「주변 사람들」(23.8%), 「SNS(카카오톡 등)」(15.3%)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가장 많이 응답한 「주변 사람들」은 34.1%에서 2025년 23.8%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가장 많이 응답한 「TV」는 2023년 30.5%에서 2025년 41.3%로 증가함.
- 지역별: 중부권은 「주변 사람들」(38.4%)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6.2%)과 서남부권(48.9%)은 「TV」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39.9%)과 여성(43.1%) 모두 「TV」를 가장 주된 정보 획득 매체로 사용함.
- 연령별: 15~29세와 30대, 40대는 「SNS」 응답이 가장 많고, 50대 이상은 「TV」를 주된 정보 매체로 사용하여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연령이 높을수록 「TV」, 연령이 낮을수록 「SNS」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표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단위: %)

구 분	계	시정 소식지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게시판· 현수막 등	인터넷	SNS	반상 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17년	100.0	2.4	49.7	1.3	3.3	3.7	22.9	6.9	0.5	9.1	0.3
2019년	100.0	3.2	38.3	1.6	2.8	6.9	19.1	13.9	1.4	12.5	0.2
2021년	100.0	4.8	23.5	1.6	3.5	9.5	13.2	14.6	0.6	24.5	4.2
2023년	100.0	6.1	30.5	0.4	2.7	3.3	7.2	15.5	0.2	34.1	0.1
2025년	100.0	4.0	41.3	0.3	1.1	7.9	5.6	15.3	0.7	23.8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3	46.2	0.3	2.0	8.2	6.5	12.1	0.2	21.2	
북 부 권	100.0	6.7	30.7	0.0	1.1	1.9	3.8	16.2	1.3	38.4	
서 남 부 권	100.0	1.7	48.9	0.6	0.4	13.9	6.7	16.5	0.3	10.8	

자료: 2025년 신안군 사회조사